



장진, 「웰컴 투 동막골」

- 갈래 : 희곡
- 성격 : 향토적, 교훈적
- 제재 : 시대적 배경 : 1950년 가을, 6.25전쟁 중. / 공간적 배경 : 깊은 산골, 동막골
- 주제 : 유배지에서 느끼는 감정

#EBS

해제

이 작품은 6·25 전쟁 당시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인 동막골에 국군과 인민군, 그리고 미군 조종사가 함께 오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서로 적대시하던 군인들이 동막골 사람들의 순수하고 인정 넘치는 삶에 감화되어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통해 전쟁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허구성을 깨우쳐 준다. 또한 동막골을 폭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을 통해 인간애와 평화가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주제

이념 대립을 넘어선 순수한 인간애와 희생정신

전체줄거리

강원도 산골 마을 동막골에 미군 조종사 스미스가 추락하게 된다. 곧이어 국군과 인민군 일행도 동막골로 들어와 이들은 서로 대립한다. 이렇게 모인 군인들은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동막골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서로 친밀하게 지내게 된다. 그러나 동막골에 추락한 미군기가 적군에 의해 폭격됐다고 오인한 연합군이 마을을 집중 폭격하기로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군과 인민군 일행은 동막골을 지키기 위해 동막골과는 다른 위치에 가짜 적군 기지를 만들어 연합군의 폭격을 유도하고, 자신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장진, '웰컴 투 동막골'

[앞부분의 줄거리] 산간벽촌의 동막골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모르는 부락민들은 국군인 현철과 상상이 전하는 전쟁 발발
↳ 가상의 공간. 우리가 추구하고 지켜 나가야 할 인간의 순수함과 평화로움이 있는 곳을 상징.

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던 중국군과 미군 조종사, 그리고 부락민이 함께 있는 촌장의 집으로 인민군 낙오병 치성, 영희, 택기가 들이닥친다.

S# 22. 조종사가 누워 있는 방 N.* / INT.*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밖이 궁금한 조종사, 부상당한 몸을 간신히 움직여 머리로 문을 밀어낸다.

↳ 인민군 낙오병 치성, 영희, 택기가 마을에 들어옴

겨우 열린 틈으로 밖을 내다본다. “저건 또 뭐하는 짓들이지?”

평상 위에 부락민들이 죽 올라서 있는 이상한 행동을 보며 머리를 가웃거리는 조종사.

↳ 인민군들이 마을사람들을 위협함

S# 23. 다시 촌장 집 마당 N. / EXT.*

부락민들 사이사이로 간간이 보이는 적군의 모습들. 싸늘한 기운이 흐르고……. - 서로 적대적임

영희: (겁에 질린 투로) 상위 동지. 아니 군대 없대서 왔는데 결정하는 것마다 와 이랩넬까? - 국군과 대립하는 상황에 불만을 토로

치성: (이를 악문다.) ……!

택기: 열 발 안쪽에 있습니다. 우린 셋이고 저게는 둘입니다. 확 까 치웁시다!

치성: 전사 동무, 그냥 내 뒤에 있으라우!

영희: 아새끼래 놀랑거리며 일 맨들디 말구 가만 좀 있수라우.

상상: 수적으로 우리가 밀리는데 어떡해요? 그러게 그냥 지나쳐 가자니까 왜 여기까지 와 가지구……. 난 되는 게 없어. 니미.

현철: (무섭게 인민군을 노려보다 소리 지른다.) 야! ↳ 인민군과 대립하는 상황에 불만을 토로

인민군 셋 침묵.

마을 사람들 인민군과 국군을 번갈아 보다가…….

달수: (인민군들에게) 안 들려요? 부르는 거 같은데……. - 국군과 인민군이 대립하게 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순진한 모습.

달수 처: (현철에게) 우리한테 말해요. 전해 줄 테니. 동막골이 당시 전쟁에서 비켜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치성: 와? 방아쇠에 손가락 집어넣었으면 땡겨야지. 다른 불일 있네? - 상대방에게 약한 모습을 들켜지 않기 위해 강하게 대응함.

영희: 상위 동지. 거 괜히 세게 나가디 마시라요. 우린 총알도 없는데……. - 치성이 수류탄을 빼든 이유

현철: 여기서 이리저리 말고 나가서 제대로 한번 붙자!

상상: 미쳤어요? 수적으로 밀린다니까.

현철: 죄 없는 부락 사람들 피해 주지 말고 일단 나가자! -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현철의 배려심

석용: 우리 때문이면 괜찮아요. -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순수한 모습

촌장: (지긋이) 석용아……. - 촌장은 사태를 파악하고 있음

치성, 자신의 빈총이 의식됐는지 고민하다 이를 악물고 수류탄을 빼 든다.

치성: 내 말 잘 딴으라우! 괴뢰군 아새끼나 부락 사람이나 조금만 허튼짓했단 그 즉시 직살하는 거야! 지금 한 말 허투루 딴디 말라!

영희와 택기도 눈치챘다. 옆으로 총을 집어 던지고 모두 수류탄을 꺼내 든다.

부락민들 치성의 말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지 그저 수군거리고만 있다. - 수류탄의 위험성을 모름

치성: 뭐 이런 것들이…… 야 말 같디 않네! (버럭) 전체 손 버쩍 들라우!

부락민들 서로 눈치를 보다 하나둘 손 올린다. 왼손을 드는 사람, 오른쪽 손을 드는 사람.

↳ 현철이 소총으로 치성을 겨누고 있음 ↳ 손을 들라는 치성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현철의 소총 가늠자로 보이는 흥분한 치성의 얼굴. 옆으로 팬*하면 손에 들린 수류탄이 보인다. 무슨 이유에선지 불안한 표정이 되는 현철.



장진, 「웰컴 투 동막골」

[중략 부분의 줄거리] 연합군이 동막골을 적진으로 오인해 폭격하려 한다. 인민군과 국군은 동막골 주민들을 구하고자 미군 스키스를 연합군 기지로 보내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짜 기지를 만들어 폭격을 유도하는 작전을 펼친다. 이 작전이 성공하여 연합군은 가짜 기지에 폭격을 가하는데, 영희와 상상이 폭탄과 총에 맞아 죽는다.

↳ 마을을 구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희생됨

S# 122. 산등성 N. / EXT.

그들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거대한 포탄 밑에서 서로를 보는 세 사람. 치성, 현철, 택기.

↳ 폭격이 일어나는 장면을 군인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

그렇그렇 눈물 맺힌 눈으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주인공들. “우리 잘한 거지?”

↳ 마을을 구하기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확인하고자 함

S# 123. 동막골 N. / EXT.

산 너머 먼 하늘에 섬광이 일고 있다. 신비한 듯 보고 있는 동막골 사람들.

↳ 폭격이 일어나는 장면을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

멍한 표정의 김 선생. 뒤돌아서며 욕지거리를 하는 노모. 표정 없이 보는 촌장.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어다니는 평화로운 동막골. - 군인들의 희생으로 마을이 위기를 벗어남

S# 124. 숲 어딘가 N. / EXT.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도 내지 못하고 들쭉날쭉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스미스. - 군인들이 희생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제시
그 모습을 보는 한국군 2.(F.O.)

S# 125. 산등성 아침 EXT. (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 ↳ 폭격으로 인해 폐허가 된곳을 가림

간밤에 내린 눈으로 전날 밤의 치열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간혹 허수아비만이 비죽 튀어나와 있다.

질게 깔린 안개.

안개 속에서 점차로 드러나는 형태들. 수색 나온 토벌대다.

폭격 지점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는 군함발들. ↳ 폭격으로 인민군이 죽었음을 보여줌

문득, 그들 중 누군가의 시선. 눈 속에 파묻힌 인민군 군복이 얼핏 보인다.

그런데 그 옆에는 국군의 군복도 보인다.

폭격으로 국군이 죽었음을 보여줌 ↳ 인민군과 국군이 같이 죽어있는 상황에 대한 의아함

알 수 없다는 듯 가웃거리는 그의 표정에서 카메라 서서히 빠져 공중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나비 다섯 마리가 스윽 날아오른다. - 마을을 위해 희생한 다섯 명의 군인. 현철과 상상(국군), 치성과 영희와 택기(인민군)을 상징

현철(소리): 우리가 이긴 거…… 맞죠?

치성(소리): 고렘. 완전히 대승이다. 하하하.

상상(소리): 나 솔직히 아까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노을이 딱 지는데 미치겠더라구.

택기(소리):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했다고 생각되지비?

상상(소리): 도망갔으면 자세 안 나오지.

영희(소리): 아새끼래, 아까 우는 거 다 봐서야…….

*N.: 밤(night) 장면.

*INT.: 실내 장면.

*EXT.: 실외 장면.

*팬(PAN.): 카메라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카메라를 좌우로 움직이는 촬영 기법.

#작품의 특징

- 동일한 사건을 다양한 시각의 장면으로 처리하면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나 갈등 관계를 드러낸다.
-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읽을 수 있다.
- 「웰컴 투 동막골」의 웃음은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과 새로운 상황에 반응하는 그들의 독특한 모습 때문에 생긴다



김소운, 「특급품」

- 갈래 : 수필
- 성격 : 교훈적, 유추적
- 특징 : 사실과 생각을 적절히 섞어서 독자의 이해를 도움
- 제재 : 삶에 대한 이해와 애정
- 주제 : 인생의 과실을 극복해 나가는 유연한 자세

#EBS

해제

이 작품은 흠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뒤집어, 흠터가 있는 비자반이 특급품으로 인정받는 상황을 소개하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둑판을 소재로, 인생을 살다가 얻게 되는 흠터나 상처에 좌절하지 않고 유연한 마음으로 이겨 낼 때 보다 성숙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주제

인생의 과실을 극복해 나가는 유연한 자세

구성

- ▶ 처음: 특급품 비자반의 특징과 묘미
- ▶ 중간: 균열이 생긴 비자반이 특급품이 되는 과정과 그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본 인생의 과실
- ▶ 끝: 과실을 극복하기 위한 유연성과 그러한 삶의 태도를 지닌 인생의 가치



김소운, 「특급품」

비자반(榧子盤)* 일등급 위에 또 한층 뛰어 특급품이란 것이 있다. 반재며, 치수며, 연륜이며 어느 점이 일급과 다르다는 것은
↳ 바둑판 만드는 재료

특급품과 일급품의 차이.
흉터가 있는 것의 가치를 높게 책정함 ↖

↳ 태평양 전쟁 전

아니나,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 알기 쉽게 값으로 따지자면, 전전(戰前) 시세로 일급
일급품의 가격과 비교하며 특급품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냄 ↳
이 2천 원(돌은 따로 하고) 전후인데, 특급은 2천4, 5백 원 -, 상처가 있어서 값이 내리는 게 아니라 되레 비싸진다는 데 진진
한 묘미가 있다. ↳ 매우 재미가 있다. ↳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은 기약지 않은 불측의 사고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그 균열의
↳ 장기판, 바둑판 등의 표면 ↳ 나무베개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일급품 바둑판이 목침 감으로 전략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할 여지가 있
을 정도라면 형겅으로 싸고 뚜껍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 둔다.(갈라진 균열 사이로 먼지나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단
속이다.) ↳ 거북이 등껍데기 모양으로 갈라져서 터짐

1년, 이태 -, 때로는 3년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동안에 상처 났던 바둑
판은 제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癒着)해 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는다.
↳ 서로 떨어지지 않게 결합되어 있음.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란 특질에 있다.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힘으로 도로 유착, 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란 특질을
↳ 비자반이 가진 특징. 특급품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성질

실지로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 증서이다. 하마터면 목침감이 될 뻔했던 것이,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 내면 되레 한 급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 버린다. 재미가 깨를 부는 이야기다. ↳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실수.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 도리어
더 부연할 필요도 없거니와, 나는 이것을 인생의 과실(過失)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본다. 언제나, 어디서나 과실을 범할 수 있
↳ 여기서부터는 사실의 제시가 아니라 생각의 서술. 체험의 가치를 설명하여 글의 압축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그만큼 글의 주제는 명료해진다.

다는 가능성 -, 그 가능성을 매양 꿈무늬에 달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다.

과실에 대해서 관대해야 할 까닭은 없다. 과실은 예찬(禮讚)하거나 장려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어느 누가 ‘나는 절대로
과실을 범치 않는다’고 양언(揚言)할* 것이냐? 공인된 어느 인격, 어떤 학식, 지위에서도 그것을 보장할 근거는 찾아내지 못한
다.』 『: 인간이면 누구나 과실을 범할 수 있음

(중략)

과실은 예찬할 것이 아니요, 장려할 노릇도 못 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과실이 인생의 『‘을 마이너스’일 까닭도 없다.』

↳ 글쓴이의 가치관. 앞에서 한 얘기를 반복.(주제 강조)

『: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될 수는 없다.

과실로 해서 더 커 가고 깊어 가는 인격이 있다.

과실로 해서 더 정화(淨化)되고 향기로워지는 사랑이 있다. 생활이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다. 어느 과실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제 과실, 제 상처를 제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비자
반의 탄력 -, 그 탄력만이 과실을 효용한다. 인생이 바둑판만도 못하다고 해서야 될 말인가.

↳ 과실을 가치있게 만드는 것은 ‘유연성’에 달렸다. ↳ 특급품의 비자반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인생의 교훈을 얻기를 바람. 질문의 형식.

*비자반: 윗면을 비자나무 판자로 대어 만든 바둑판.

*양언할: 공공연하게 소리 높여 말할.

#작품의 특징

- 특급품 비자반에서 얻은 교훈을 인생에 적용해 삶도 그러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 간결한 문장을 반복하여 효과적으로 주제를 강조한다.
- 마지막 문장을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하여 여운을 남김.



작자미상, 「홍보가」

- 갈래 : 판소리(판소리 사설)
- 성격 : 희극적, 해학적, 풍자적
- 주제 :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표면적) / 조선 사회의 부조리(이면적)

#EBS

해제

이 작품은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로, 등장인물들의 익살스러운 재담이 다양하게 들어 있어 해학성이 가장 짙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홍보가」를 일명 「박타령」이라고 하는데, 홍보와 놀보가 박을 타는 대목에서 부르는 노래인 '박타령'이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기 때문이다. 박 속에서 온갖 비단과 보물이 나온다는 설정은 비현실적이지만, 이는 당대 민중이 직면하고 있던 절대적 빈곤과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권선징악, 형제간의 우애를 주제로 내세우면서도 이면적으로는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부조리를 보여 주는 작품이다.

주제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 / 조선 사회의 부조리

전체줄거리

형인 놀보는 욕심이 많고 심보가 고약하며, 아우인 홍보는 선량하고 우애가 깊다. 놀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독차지하고 홍보네 가족을 내쫓는다. 홍보는 살아가기 위해 온갖 품팔이를 다하며, 심지어는 매품까지 판다. 어느 날 홍보는 제비의 부러진 다리를 고쳐 주고, 제비가 물어다 준박씨를 심어 열린 박 속에서 나온 재화로 부자가 된다. 이 사실을 안 놀보는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후에 고쳐 주고, 이듬해 봄에 제비가 놀보에게 박씨를 물어다 준다. 그러나 놀보는 박 속에서 나온 노승, 상여꾼, 초라니패 등에 의해 패가 망신을 당한다. 홍보는 놀보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놀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형제가 화목하게 살게 된다.

#작품의 특징

- 반복과 열거를 통해 사설을 전개하거나 자왕하게 전달하기도 하면서 재미를 극대화시킴
-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
- 해학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청자들의 긴장을 이완하고 웃음을 유발한다.
- 구어체, 대화체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고 비속어 표현도 나타난다.
- 판소리 사설이 형성되었던 전라도 사투리로 구성되어 향토적인 느낌을 준다.
-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자본주의가 발달된 당대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작자미상, 「홍보가」

<중중모리>

홍보가 좋아라, 박홍보가 좋아라고, 돈 한 꾸러미를 손에다가 들고 춤을 추면서 논다.

↳ 서민들은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대리 만족을 느낌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 좋을씨고.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지권*을 가진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아니, 돈아!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 얼씨구나 돈 봐라.』 여봐라, 큰자식아. 건넛마을 건너가서, 너의 큰아 『. 당대 유행하던 ‘돈타령’의 구절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현실을 반영

버지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형제간에 보자, 얼씨구나 절씨구. 옛그제까지 박홍보가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
↳ 홍보가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인물임

어 석송*이를 부러워하며, 도주공*을 부러워하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즐
린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절씨구 지화자 좋네. 이런 경사가 또 있다.” ↳ 가난한 사람들에게 동병상련을 느끼는 홍보

<아나리>

한참 좋아라고 절굿대춤*을 추었었다. <>사투리를 사용한 어구로 판소리 특유의 향토적 정감을 느끼게 해 준다.

“여보시오, 마누라. 우리 굶주리던 속에, 쌀 본 김에 밥이나 좀 해 먹읍시다. <아, 우리 권속*이 몇이제? 『내가 자식 놈들이 어
↳ 최소한의 먹을거리도 해결하지 못한 궁핍한 서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찌 많던지 몇 놈이 된 줄을 모르겠어.> 가만히 있자. 음, 아리롱이, 다리롱이, 거맹이, 노랭이, 백산이.

↳ 흥미를 위해 삽입된 재담 ①, 자식이름 외워 보기

아, 이 홍보가 아들 이름을 짓는데 개 이름으로 전부 지었었다.” 『. 자식을 많이 낳아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함. 해학적인 표현

“가만히 있거라. 세 보자. 옳지. 자식이 아홉, 우리 내외 합하니 열하나로구나. 아, 굶던 속에 한 사람 앞에 쌀 한 섬씩 못 먹겠
는가? 쌀 열한 섬만 밥을 해라.” 한 섬은 열 말로 부피의 단위로. 180리터이며, 벼는 200 kg, 쌀은 144 kg, 보리쌀은 138 kg이다. ↳

↳ 과장. (11*144kg=1,584kg) 『. 과장을 통한 웃음 유발 (150평*닷마지기=750평)

밥을 해제껴 논 것이 『닷 마지기』 거름 무더기보다도 더 크것다. 홍보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자식 놈들 굶주렸던 속에 함부
↳ 마지기는 농지의 면적을 세는 단위로 씨 한 말을 뿌려 농사를 지을 만한 크기의 농지. 논은 약 150~300평, 밭은 약 100평 정도이다.
경기에서 말하는 ‘한 마지기’는 150평, 충청에선 200평, 강원에선 300평 또는 150평이다.

로 밥을 먹다 탈이 날까 싶어서, 밥 영(승)을 내리는데,

“너 이놈들! 내 영전에 밥을 먹었다가는 밥으로 목을 베리라!”

↳ 명령하기 전에

해 노니까, 그래도 자식 놈들이 자기 아버지 영을 꼭 지켰던가, 내, 그저 원통 철환 나가듯이 할라고 그냥 팍 쭈그리고 앉아서,
자기 아버지 영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적에, ↳ 총알

“너 이놈들! 숨 쉬어 감서 밥 먹어라!”

허니까 원통 철환 나가듯이 ‘웁’ 소리만 났제, 자식 놈들은 하나도 없어졌었다. 아, 이놈들이 다 어디로 도망 갔을까? 아, 이놈
들이 그냥 어떻게 세계 갔던지, 『밥 속으로 가서 폭 박혀 가지고, 속에서 벌거지 그저 나무 좀먹듯 먹고 나오는데, 참, 자식 놈
들 밥 먹는 것 기가 막히게 먹는구나.』 『. 비현실적 상황, 해학적

“여보시오, 마누라, 내 평생에 원이니, 나 그 꾀*를 몽땅 벗고, 나도 밥 속으로 가서 폭 파묻혀서 먹어 볼라요.”

“아이고, 영감, 그러면 나도 그럴라요.”

“허허, 이 사람아. 자네가 남녀가 유별한다, 행여라도 그렇게 하면 못쓰는 것이니, 자네는 여기서 밥 먹는 구경이나 허고, 조
금만치씩 먹소.”

홍보가 밥을 먹는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푼돌 뭉쳐 가지고 혹 어깨 너머로 던져 가지고 두꺼비파리 잡듯 딸각딸각
받아먹는다, 밥 먹는다 무슨 박자가 있으라마는, 그 밥 먹는 데도 휘모리로 달아 놓고, 밥을 먹어 보겠다.

↳ 흥미를 위해 삽입된 재담 ② 홍보가 밥을 던지고 받으며 먹음

↳ 오랜만에 밥을 배불리먹는 흥겨움 표현

<휘모리> - 판소리 장단 중 가장 빠른 장단. 밥을 실컷먹는 흥겨움

홍보가 좋아라고, 홍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홍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홍보가 좋아라고 밥을 먹는다. 푼돌 뭉쳐 갖고
『던져 놓고 받아먹고, 던져 놓고 받아먹고, 던져 놓고 받아먹고, 던져 놓고 받아먹고, 던져 놓고 받아먹고, 던져 놓고 받아먹고,



작자미상, 「홍보가」

똥똥 뭉쳐 갖고 던져 놓고 받아먹고, 던져 놓고 받아먹고, 던져 놓고 받아먹고, 던져 놓고 받아먹고,』 어찌 밥을 먹어 놓았던지,
『: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밥이 목구멍까지 차 가지고 정신이 없고, 눈을 뒤집어 까고 홍보가 죽게 되었구나. 홍보 마누라 밥을 먹다 가만히 보니, 자기 영
↳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홍보가 죽게되었다고 함. 과장을 통한 해학 유발 흥미를 위해 삽입된 재담 ③ 밥을 너무 많이 먹어 죽을 지경이 된 홍보
감이 죽게 되었다. 홍보 마누라 놀래 가지고,

“아이고, 영감! 밥 먹다 죽다니, 이런 일이 어디가 있소? 어라, 아직도 내가 밥을 먹으려면 내, 쌀 석 섬은 더 먹겠구나.”

<아나리>

홍보 자식들이 밥 먹느라고 자기 아버지 죽는 꼴도 못 보겠다. 이때 홍보 큰아들놈이 썩 들어오며 제깃밥* 먹듯 허겁다.

“여, 밥판이 어떻게 되었소?”

『“아이고, 이 녀석아. 밥이고 뭇이고, 느그 아버지 죽는다!”

“밥 먹다 죽는 게 뉘 아들놈한테 원망을 헌단 말시오?”』

『: 웃음 유발. 재담을 시작함을 알림 흥미를 위해 삽입된 재담 ④ 큰아들을 꾸짖는 홍보 부인

“너 이 녀석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아, 밥 먹고 죽으면 죽었제, 쓰겼소, 거? 그래, 아버지 이 배가 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스럽게 생겼으니, 한번 튕겨 봅시
다.”
↳ 엉뚱한 상황을 제시하여 긴장감 이완

‘탁’ 튕겨 노니까, 어떻게 밥을 먹어 났던지, 뱃가죽이 장구 가죽 되야 갖고 ‘땡그랑’ 소리가 나게 밥을 먹었던가 보더라. 배꼽에
있는 때가 녹두 알맹이로 그저 똥똥 뭉쳐서 나가는디, 핑기쳐 나가는 소리가

‘팽 팽’ 소리가 나고, ‘땡그랑’ 소리가 나는데 기가 막히겠다. 홍보 자식들이 밥을 먹다 땡그랑 소리에 깜짝 놀래 갖고, 우 달려
들어 이놈이 땡그랑 탁 튕기고, 저놈이 튕겨서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장단이 맞게 되었겠다. 홍보 자식들이 어

↳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떻게 좋던지, 거 여 배를 누르면서 꼭 누르는 것이, 이때 홍보가 어디 살았는고 하면 팔랑치 재 밑에 살았겠다. 똥 줄기가 운봉
홍보 자식들이 홍보의 배를 누르니 똥줄기가 나와 다른 마을까지 뻗어갔다. (해학적, 과장적) ↳

연재로 그냥 넘어 달아오니까, 그 농군들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아, 무지갯살같이 그저 불그스름히 넘어오니까 어떻게 놀래
났던지, ‘황룡 올라간다.’ 하고 전부 절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해가 운봉 시절은 그냥 몇 해에 풍년이 들어 갖고 잘되었제. 이
건 잠시 동안에 소리하는 선생, 잠시 저 재담이었다. 홍보가 좋아라고 둘째 통을 들여놓고 타는디,

<진양조>

“시리령 실건, 톱질이로고나. 에이루, 당그여라. 시르르르르르. 실건 실건으 톱질이야. 이 박을 타거드면, 아무것도 나오지
↳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박을 타는 소리를 나타내 장면의 흥겨움을 보여준다.

를 말고서 은금보화가 나오너라! 은금보화가 나오거든 형님 갖다가 드릴란다.”

↳ 자신에게 심술을 부렸던 놀보일지라도 자신의 귀한 것을 나누고자 하는 홍보의 선한 인성

홍보 마누라 화를 내며, 톱 머리를 시르르르르르 놓고, 뒤로 주춤 물러서서 자기 영감을 물끄러미 보더니만,

“나는, 나는 안 탈라요. 안 탈라요. 여보, 영감, 형제간이라 잊었소? 동지선달 추운 날에, 자식들을 맨발을 벗기여, 몽뎡이 무
서워 쫓겨나던 일을 죽어도 못 잊었소. 나는, 나는 안 탈라요. 안 탈라요.”

*생살지권: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

*석송, 도주공: 중국의 큰 부자.

*기민: 굶주린 백성.

*절굿대춤: 팔만 벌리거나 몸의 관절만 움직이거나 또는 아래위로만 움직이며 제멋대로 추는 춤.

*권속: 한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피: 웃.

*제깃밥: 음식을 차려 남을 대접하는 밥.



작자미상, 「하회 별신굿 탈놀이」

- 갈래 : 탈춤(민속극) 대본
- 성격 : 비판적, 풍자적, 희화적, 해학적
- 제재 : 서민과 양반의 생활
- 주제 : 양반과 선비의 허위성 폭로

#EBS

해제

이 작품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 마을에서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지내는 서민들의 별신굿이다. 구성은 '강신 마당, 무동 마당, 주지 마당, 백정 마당, 할미 마당, 파계승마당, 양반·선비 마당, 당제, 혼례 마당, 신방 마당, 허친거리굿'으로 되어 있다. '양반·선비 마당'은 양반, 선비, 초랭이, 부네, 이매가 등장한다. 양반과 선비에 대한 풍자가 돋보이며, 초랭이는 양반을 비판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다른 탈춤처럼 양반 계층의 허위성을 신랄하게 드러내고 있고, 인물 간의 비판 의식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인물들끼리 화해하고 신나게 춤을 추는 장면에서 놀이로서의 성격도 읽어 낼 수 있다.

주제

[양반·선비 마당] 양반과 선비의 허위성 폭로

전체줄거리

[양반·선비 마당] 양반은 춤을 추며 등장하고 선비는 부네를 데리고 등장한다. 양반은 부네를 보고 마음이 동하여 부네를 꺾려 하고, 초랭이는 그러한 양반의 모습을 보고 장난기가 발동한다. 부네는 그사이 나타난 중과 어울려 놀고, 돌아와서는 양반과 선비 사이를 오가며 두 사람의 심경을 고조시킨다. 양반과 선비는 부네를 사이에 두고 서로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지체와 학식을 과시하며 다툼을 벌이고, 초랭이의 계략으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그러다 백정이 우랑을 들고 나타나 "양기에 좋다."라고 하자 서로 차지하려고 "이긴 내 우랑일세."라고 하며 다툰다. 지나가던 할미가 이 모습을 보고, "에이, 뭍쓸 것들." 하며 질타하는데, 할미의 질타를 신호로 '양반·선비 마당'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나와 서로 어울려 '노는 춤'을 추며 갈등을 해소한다.



작자미상, 「하회 별신굿 탈놀이」

↳ 탈놀이의 구성 단위. 각 과장사이에 연속성이 없고,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됨

제 5 과장 양반·선비 마당

↳ 계급 갈등, 양반에 대한 비판이 가장 두드러진 과장. 풍자의 수위가 <봉산 탈춤>보다는 낮다.

초랭이: 양반요, 나온 김에 서로 인사나 하쇼. (인사하는 행동)

양반: 여보게 선비, 우리 통성명이나 하세. / 선비: 예, 그러시더.

(양반과 선비가 서로 절을 하려고 할 때, 초랭이가 양반 머리 위에 엉덩이를 돌려대고 선비에게 자기가 인사를 한다.)

↳ 일부러 경박한 행동을 하면서 양반을 희롱

초랭이: 해헤…… 니 왔니꺼? * / 양반: 옛기, 이눔. - 초랭이의 언행을 꾸짖음

↳ 표준어로 '너 왔습니까?' 양반은 뒷사람이므로 '어르신 오셨니꺼?' 가 격식에 맞는 표현. 양반의 권위를 부정하고, 웃음을 유발.

선비: 저놈의 초랭이가 버릇이 없구만요.

(중략)

양반: 어흠, 그래 내가 양반이 아니고 또 머로? 여기에 내보다 더한 양반이 어디 있노?

↳ 자신이 양반의 신분임에 자부심을 가짐. 양반답지 못한 행위를 통해 웃음을 유발.

(선비는 부네를 부르고 자리에 앉는다. 양반도 앉는다. 부네는 가만히 선비에게로 가 선비의 어깨를 주무른다. 선비는 부네가

↳ 선비의 첩

주무르는 손을 어루만지며, 양반이 보란 듯이 다정스레 대한다. 양반은 선비의 그런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초랭이는 이러

↳ 자신의 젊고 예쁜 첩을 양반에게 자랑함. ① 유교 예법에 벗어나는 선비와 부네의 행동이 못마땅함, ② 선비에 대한 시기와 질투

한 양반의 마음을 읽고 그를 놀려 주기로 생각한다.)

초랭이: 양반요, 어깨 주물러 주까요?

(양반의 '오냐' 소리에 초랭이는 부네의 흉내를 내듯 양반의 어깨를 몇 차례 주무르다가 무릎으로 양반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한다. 양반은 초랭이의 우악스러운 안마에 더 이상 못 참겠던지 초랭이를 뿌리친다.)

↳ 양반을 희롱함

양반: 아이쿠, 이눔 어깨 부서질따.

(초랭이는 뒤로 나동그라진다. 다시 일어서 양반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치려는 행동을 한다. 부네는 어깨 주무르는 것을 그만두고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다.)

↳ 양반에 대한 야유

(중략)

양반: 애 부네야, 그래 우리 춤이나 한번 추고 놀아 보자. - 양반의 체면을 지키지 않고 부네에 대해 관심을 표하는 위선적인 모습.

(상쇠의 가락에 맞춰 양반, 선비, 부네, 초랭이가 어울려 '노는 춤'을 추며 마당은 곧 흥에 넘친다. 그러나 양반과 선비는 부네를 사이에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여 춤은 두 사람이 부네와 같이 춤추려는 내용으로 이어져 간다. 부네는 요염한 춤을 추며

↳ 이성에 대한 욕망을 숨기지 않고 드러냄. 양반춤의 위선 풍자

양반과 선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두 사람의 심경을 고조시킨다. 이것을 간파한 우선 양반에게로 가 무언가를 얘기한다. 이

↳ 양반과 선비의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 ①

↳ 양반과 선비의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 ② - 초랭이의 계략

- 부네의 태도 초랭이는 양반과 선비를 싸움 붙이려는 계략을 꾸민다.

에 양반은 초랭이가 시키는 대로 선비에게로 가 그를 데리고 그 무언가를 얘기하면 선비는 관중석에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한

선비를 따돌리고 부네를 독차지하기 위한 거짓말

탈놀이의 특성상 무대와 관중석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다. 이를 기회로 양반은 부네와 춤을 계속 추게 된다. 관중 속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찾던 선비는 부네와 어울려 춤추는 양반을 보고는 '속았다'는 생각에 노발대발하여 양반을 부른다.)

선비: 여보게 양반 -

선비: 여보게 양반, 자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양반: 허허, 무엇이 어째? 그대는 내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선비: 아니, 그라마 그대는 진정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양반: 허허, 뭣이 어째? 그러면 자네 지체가 나만 하단 말인가? - 자신의 지위를 앞세움

선비: 아니 그래, 그대 지체가 내보다 낮단 말인가?

양반: 암, 낮고말고.



작자미상, 「하회 별신굿 탈놀이」

선비: 그래, 낮은 뭐가 나아.

양반: 나는 사대부의 자손일세.

↳ 자신의 지체가 높음을 드러냄

선비: 아니 뭐라꼬, 사대부? 나는 팔대부의 자손 일세.

양반: 아니, 팔대부? 그래, 팔대부는 뭐로?* ↳ '4'의 배수'8'을 사용. 언어유희

선비: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 ↳ 고려시대의 최고 관직. 자시느이지체높음을 드러냄

양반: 뭐가 어째, 어흠, 우리 할뻔*은 문하시중을 지내셨거든.

↳ 이치에 맞지 않는 선비의 거짓말에 대꾸를 못하는 양반의 무식함.

선비: 아, 문하시중. 그까짓 것…… 우리 할뻔은 바로 문상시대인걸.

양반: 아니 뭐, 문상시대? 그건 또 머로? ↳ 下의 반대인 上, 中보다는 大. 언어유희

선비: 예헴, 문하보다는 문상이 높고 시중보다는 시대가 더 크다 이 말일세.

양반: 허허, 그것 참 빌 꼬라지 다 보겠네. 그래,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

↳ 화가나자 경박한 표현을 사용함.

선비: 예헴, 그라만 또 머가 있단 말인가?

양반: 학식이 있어야지, 학식이. 나는 사서삼경을 다 읽었다네.

↳ 학식이 높음을 드러냄

선비: 뭐 그까짓 사서삼경 가지고. 어흠, 나는 팔서육경을 다 읽었네.

↳ 언어유희

양반: 아니, 뭐? 팔서육경? 도대체 팔서는 어디에 있으며 그래 대관절 육경은 또 뭔가?

(초랭이는 여태까지 두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들다가 쩍싸게 끼어든다.)

초랭이: 헤헤헤, 난도* 아는 육경 그것도 모르니껴. 팔만대장경, 중의 바라경, 봉사의 앤경, 약국의 길경*, 처녀의 월경, 머슴의 새경* 말이시더 -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과 선비의 어리석음을 조롱함.

(초랭이는 '머슴의 새경'을 더욱 강조하여 자신의 새경에 못마땅함을 보인다.)

↳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는 양반에 대한 비판

선비: 그래, 이것도 아는 육경을 양반이라카는 자네가 모른단 말인가? - 양반과 선비의 무식함.

양반: 여보게 선비, 우리 싸워 봤짜 피장파장이꺼네 저짜 있는 부네나 불러 춤이나 추고 노시더.

선비: (잠시 생각하다가) 암, 좋지 좋아. ↳ 지체와 학식을 자랑하지만 젊은 여성에 대한 욕망을 숨기지 않는 양반의 이중성.

*니 왔니껴?: 너, 왔습니까?

*뭐로?: 뭐야?

*할뻔: 할아버지.

*난도: 나도.

*길경: 도라지.

*새경: 머슴에게 주는 임금.

#작품의 특징

- 무대와 관중석의 구분 없이 공연자가 관중석을 넘나들게 하여 무대를 확장하고 있다.
- 선비와 양반의 모순된 언행을 통해 관객의 웃음을 유발한다.
- 언어유희 및 비속어와 성적인 표현을 통해 욕망이나 비판의 식을 드러내며 관객의 웃음을 유발한다.
- 초랭이가 양반을 골탕먹이는 모습을 통해 신분질서의 전복을 통해 풍자적인 웃음을 유발한다.
- 양반과 선비의 다툼을 통해 지배층의 위선과 가식을 풍자함.



작자미상, 「산성일기」

- 갈래 : 일기체 수필, 궁중 수필
- 성격 : 기록 문학, 궁중 문학
- 제재 : 병자호란
- 주제 : 병자호란의 치욕과 남한산성에서의 항쟁

#EBS

해제

이 작품은 병자호란 중 남한산성에서의 항쟁과 화친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일기이다. 일기의 내용이 『인조실록』, 『승정원일기』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화친을 주장하는 측과 척화를 주장하는 측의 갈등을 그려 내고 있다는 점, 섬세한 묘사가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문학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척화를 주장하는 신하들과 화친을 주장하는 신하들 간의 사건에 대한 서술에서 당시의 권력을 장악한 '김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통해 객관적 서술 이면에 드러나는 작가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주제

병자호란 중 남한산성에서의 항쟁과 화친 과정, 병자호란의 치욕

구성

「산성일기」는 크게 도입부와 중심부, 종결부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 도입부: 병자호란이 발발하게 된 배경
- ▶ 중심부: 남한산성에서의 항쟁과 화친, 삼전도에서의 치욕
- ▶ 종결부: 환궁 이후 3년간의 일



작자미상, 「산성일기」

1637년 1월 18일

↳ 일기의 형식을 통해 그날의 일을 서술

↳ 중국 청나라의 장군. 인조의 항복을 받아낸 삼전도의 굴욕사건으로 유명

18일에 홍서봉, 최명길, 윤휘에게 국서를 주어 적진에 보내니 용골대가 “마부대가 다른 데에 나갔으니 받지 못하노라.” 하고 또 이르기를, “내일이나 모레 두 날 중에 싸우리라.” 했다. 이때 『국서의 내용』은 이와 같았다.

↳ 국가 원수가 국가의 이름으로 다른나라에 보내는 문서나 서신.

이 글에서의 국서는 이조 판서 최명길이 지음

『』: 출성하라는 청 황제의 명에 대해 입금은 난처한 입장을 밝힘

↳ 청나라를 높이고 있음

조선 국왕 모(某)는 대청국 관온 인성 황제께 글을 올립니다. 엎드려 명지(明旨)를 받으니 간절히 책망하신 것은 지극하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서 추상(秋霜)같은 엄한 말 가운데 따뜻한 봄기운의 뜻을 담으셨으니 엎드려 읽음에 황송하고 감사하여 몸 둘 곳이 없습니다.

대국의 위엄과 덕이 멀리까지 더하고 모든 제후의 나라가 사례해야 마땅하고 천명과 인심이 돌아갔으니 크나큰 명(命)을 새롭게 가다듬을 때입니다. 소방*이 10년 형제로서 도리어 죄한 것이 많으니 미치지 못할 뉘우침이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것은

↳ 조선을 낮춘 표현

다만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바꾸어 옛 버릇을 한결같이 씻어 버리고 온 나라가 명을 받들어 여러 제후국과 대등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진실로 위태로운 심정을 굽어 살피시어 극진히 구완하시고 스스로 새롭게 되기를 허락해 주신다면 문서(文書)와 예절(禮節)은 당연히 행해야 할 의식(儀式)이 있으니, 강구하고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오늘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성에서 나오라고 하는 명은 진실로 여진 뜻이지만 포위된 것이 풀리지 않았고 황제의 노여움이 크니 이곳에 있어도 죽고 성에서 나와도 또한 죽을 것입니다. 이따로 용기(龍旗)*를 우러러보며 죽음의 갈림길에서 결단하자니 그 심정이 또한 서럽습니다.

↳ 진퇴양난의 상황

/ 소방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이러하니 이것이 경계함이요, 명(命)에 따르는 것입니다. 『황제께서 바야흐로 만물을 살리는 천지의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소방이 어찌 온전히 살려 주고 관대하게 길러 주는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황제의 덕이 천지 같으니 감히 실정을 드러내 말하고 공손히 은혜를 기다립니다.』 『』: 화친을 요청

이는 이조 판서 최명길이 지은 것이다.

↳ 화친을 주장하는 입장

예조 판서 김청음(김상헌)이 비국(비변사)에 들어가 이 편지를 보고 손으로 찢고 실성통곡하니 곡성이 대궐 안에 사무쳤다.

↳ 척화를 주장하는 입장

↳ 최명길이 지은 국서에 반발함.

『이로 인하여 김 공이 최명길에게 이렇게 일렀다.

“대감이 차마 어찌 이런 일을 하시오?”

그러자 명길이 가만히 웃으며 말하였다.

“대감이 편지를 찢었으니 우리는 당당히 죽으리라.”

그러고는 종이를 낱알이 주워 모아 붙였다.

병조 판서 이성구가 크게 화를 내며 일렀다.

↳ 현재의 상태가 김청음의 주장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여김

“대감이 전부터 척화하여 나랏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대감이 마땅히 적진에 갔으면 하오.”

김청음이 대답하였다.

“내가 죽고자 했으나 자결하지 못했더니 만일 적진에 보내어져 죽을 곳을 얻으면 이는 그대의 은혜로다.”

김청음은 말을 마치고 하처*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면 통곡하기를 그치지 않고 이날부터 밥을 먹지 않고 스스로 죽기를 기약하였다. 『』: 척화와 화친을 주장하는 신하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남

1637년 1월 19일

19일에 최명길과 윤휘가 적진에 가서 국서를 전했으나 끝내 답서를 내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상* 이하(以下)가 그냥 돌아오니 참판 한여직이 일렀다.

“국서에 한 글자를 쓰지 않았으니 내 이미 답서를 주지 않을 줄 알았노라. 한 글자는 실로 클 ‘거(巨)’ 자라. 이제 김 공이 하처로

↳ 청을 높이는 클 거(巨)를 쓰지 않음에 청이 답서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함.

↳ 김청음

나갔으니 이때를 타서 그 글자를 급히 써야 할 것이오.” 그러자 명길이 “그 말이 옳다.” 하고는 ‘신(臣)’ 자 쓰기를 정하였다. (하략) 신하 신(臣)이라는 글자는 조선이 청의 신하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청을 높인다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작자미상, 「산성일기」

1637년 1월 21일

21일 동틀 무렵에 우상 이하가 적진에 가서 국서를 전하고 저녁에 다시 나아가 답서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출성하기와 척화 신하들을 잡아 보내는 일을 임금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적들이 크게 노하여 국서를 그냥 보내고 답을 주지 않았다. (하략)
척화를 주장하는 신하들을 옹호하는 임금. 『 조선의 임금이 자신들의 요구(출성하기와 척화 신하들을 잡아 보내는 일)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1637년 1월 23일

23일에 임금에게 병이 있어 몸이 불편하였다. 내국이 가져온 약재가 다만 정기산 열 첩뿐이었다. 정기산 두 첩을 지어 진어하니 즉시 나으셨다.

『』: 임금을 헐박하는 신하들의 모습

적이 척화신을 보내지 않는다고 화친을 허락하지 않으니, 『체부* 중군 신성인과 남양군 홍진도, 구광이 밤새도록 적진에 왕래 하며 가만히 의논하였다. 그런 후에 수원, 죽산의 장관(장수) 등과 훈련도감 초관 수백 명을 부추겨 먼저 체부에 갔다. 그리고 칼을 어루만지며, 임금 앞에 가서 척화신을 내놓으라 할 것을 보냈다.』 대개 수원 부사는 구인후요, 죽산 부사는 구인기, 군병은 구광에게 속했고, 신경진이 훈련 대장이었는데, 이것이 모든 군병의 뜻은 아니었다. (하략)

↳ 장관들이 벌인 일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시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소방: 소국(小國).
- *용기: 황제를 상징하는 깃발, 또는 황제의 사신이 들고 있는 깃발.
- *하처: 웃어른이나 점잖은 손님이 길을 가다가 머무르는 곳을 높여 부르는 말.
- *우상: 우의정의 다른 말.
- *체부: 체찰사가 지방에 나가 일을 보던 관아.

#작품의 특징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함
- 궁중어를 사용하여 간결하면서도 중후한 분위기를 자아냄
- 비교적 객관적인 태도로 당시의 상황을 기술함
- 몇몇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서사를 진행시킴
- 전란의 현장을 기록하여 역사적 사실의 이면을 생생히 보여 주며 사실을 간결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



이학규, 「포화옥기」

- 갈래 : 한문수필, 기(記)
- 성격 : 교훈적, 성찰적
- 제재 : 유배지에서의 깨달음
- 주제 :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EBS

해제

‘포화옥’은 ‘박꽃이 피는 집’이라는 의미로, 이 작품은 18세기를 대표하는 문인 중 한 명인 이학규가 유배지에서 쓴 체험적 수필이다. 서울에서 온 나그네를 통해 어떤 노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얻게 된 깨달음을 ‘체험과 깨달음’의 구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구성

- ▶ 기: ‘나’는 사는 곳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병을 얻음.
- ▶ 승: 어떤 나그네가 ‘나’의 불만을 듣고 여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함.
- ▶ 전: 나그네가 천수를 누리는 여관집의 노비에 대해 이야기함.
- ▶ 결: 나그네의 이야기를 듣고 얻은 깨달음을 글로 남김.

#작품의 특징

- 글쓴이의 힘든 생활 체험이 제시되어 있다.
- 나그네가 노비 이야기를 통해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교훈함으로써 글쓴이가 깨달음을 얻고 있다.
- 나그네는 자신의 직접 경험과 여관집 노비를 관찰한 이야기를 글쓴이에게 해 줌으로써 글쓴이가 교훈과 깨달음을 얻도록 유도한다.
- 글쓴이가 자신의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글쓴이의 문제 제기에 대한 나그네의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 노비 자신의 대조적인 면모, 노비와 글쓴이의 대조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 ‘여름’의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이학규, 「포화옥기」

낙하생(洛下生)*이 사는 집은 높이가 한 길¹이 못 되고, 너비는 아홉 자²가 못 된다. 인사를 하려고 하면 갖이 천장에 달고, 잠을 자려고 하면 무릎을 구부려야 한다. 한여름에 햇빛이 내리쬐면 창문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래서 둘러친 담장 밑에 박을 10여

↳ 집이 매우 좁음

↳ 여름철의 문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박을 심은 여관을 '포화옥'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과 관련이 있다.

개 심었더니, 녁쿨이 자라 집을 가려 주었다. 그러자 우거진 그늘 때문에 모기와 파리 떼들이 어두운 곳에서 서식하고, 뱀들이 서

↳ 문제 해결방안

↳ 햇빛에는 가려 주었으나 다른 문제가 발생함

늘한 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어두운 밤에 자주 일어나 등축을 들고 마당을 살펴보았다. 가만히 있으면 가려움 때문에 굶느라 지치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쏘아 대는 것이 두렵다. 이를 걱정하고 신경 쓰느라 병이 생겼으니, 소갈증이 심해지고 가슴도 막힌 듯 답답했다. 찾아오는 손님에게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말하곤 했다. ↳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으로 병이 생김

서울에서 온 어떤 나그네가 내 말을 듣고 위로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예전에 몸소 겪었던 일을 말해 주었다.

↳ 깨달음을 주는 존재

저는 어려서 집이 가난하여 장사를 했습지요. 영남 땅의 나루터, 정자, 역정(驛亭), 여관 그리고 궁벽한 고을의 작은 주막들에 이르기까지 제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행객과 나그네들이 한곳에 모이게 된답니다. 『수령과 보좌관이 먼저 내실을 차지한 채 서늘하게 지내고, 바람 부는 곁채와 시원한 평상은 아전과 역졸(役卒)들이 차지하지요. 오직 뜨거운 구들과 뜨뜻한 침상에는 벽을 뚫고 관솔불이 비쳐 들고 대자리를 깎아 빈대를 쫓아내는 곳만이 남게 되지요. 그곳만은 어느 누구도 다투지 않으며,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이틀 밤을 묵고 지내는 곳입니다.』 『; 신분에 따라 잠자는 곳의 차이가 있음.

↳ 신분이 높은 사람들

밤이 깊어 사람들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면 마치 가마솥에서 밥이 뜸들 듯한답니다. 게다가 고약한 액취가 나는 사람, 방귀 끼는 사람, 드르렁드르렁 코를 고는 사람, 이를 뽀뽀 가는 사람, 움이 나서 벽을 긁어 대는 사람, 잠꼬대를 하며 욕하는 사람 등등 갖가지 모습을 연출하니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이리저리 뒤척거리다가 도저히 견디지 못한 사람은 옷가지를 집어 들고

↳ 자신의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여관집의 노비와 대조되는 이들의 모습은 다시 유배지의 웅성한 집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글쓴이 자신의 모습과 연결

듯자리를 끼고서 부엌 바닥이나 방앗간, 외양간이나 마구간 등을 찾아다니면서 잠자리를 너댓 번씩 옮깁니다.

그런데 여관집의 노비를 보면 이와 다릅지요. 때가 잔뜩 낀 지저분한 얼굴을 하고 부지런히 소나 말처럼 분주히 오가며 일을

↳ 작가와 대조되는 존재

하지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빌붙어 아침저녁을 해결하니, 버려진 음식도 달게 먹는답니다. 그 사람은 취하여 배부르면 눕자마자 잠이 들지요. 우리네들이 예전에 견디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은 편안하게 여기니, 마치 짙짙한 낱씨 속에 선선한 방에서 잠자듯 한답니다.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옷은 다 해지고 여기저기 께매었지만 살결은 튼실하고, 특별한 재앙을 겪지 않고 천수를 누리고 있지요. ↳ 고생하며 살고 있지만 건강하게 장수함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랍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을 여관으로 생각하며, 지금의 삶을 본래 정해진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으로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없고, 끔찍거리며 탄식하느라 기운을 허하게 하는 일도 없지요. 그래서 재앙을 특별히 겪지 않고 천수를 누릴 사람이랍니다.

↳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없이 살 수 있음

또 이런 말도 있습지요. 지금 이 세상은 살아 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여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 나그네의 인생관

관은 하룻밤이나 이틀을 묵고 가는 곳입니다. 지금 그대는 이러한 여관에 몸을 기탁해 사는 데다가, 다시 또 멀리 떠나와 궁벽한

↳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없다.

↳ 글쓴이가 유배지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

골짜기에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관 중의 여관에 머물고 있는 셈이지요.

저 여관집의 노비는 일자무식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는 여관을 여관으로 여기면서, 음식도 잘 먹고 하루하루를 지내니, 추위와

↳ 실제의 여관

↳ 잠시 머물다 가는 곳

더위도 그를 해치지 못하고 질병도 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대는 도를 지키고 운명에 순종하며, 소박하고 솔직한 태도로 행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관 중의 여관에서 지내면서도 『여관을 여관으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스스로 화를 돋우고

↳ 글쓴이가 기거하는 유배지의 집

↳ 잠시 머물다 가는 곳으로 생각지 않음

『; 주어진 삶에 만족하기를 권함

들볶아 원기를 손상시키니, 병이 생겨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대가 배우기를 바라는 것은 옛날 성현의 말씀인데도, 오히려 여관집의 노비가 하는 것처럼도 하지 못하는구려. 이에 그 말을 서술하여 벽에 적고 「포화옥기」라 하였다.

↳ '나'가 여관집 노비와 같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며 '나'의 태도 변화를 촉구

↳ 현실의 고통을 보다 너그럽게 바라보려는 글쓴이의 인식의 전환을 기록하기 위해 '기(記)'를 씀.



차범석, 「산불」

- 갈래 : 희곡. 사실주의(리얼리즘) 희곡
- 배경 : 시간 : 6·25 전쟁 중 1951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 / 공간 : 소백산맥 줄기의 촌락
- 주제 : 6·25전쟁 중 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당하는 마을 사람들의 삶과 사랑
- 인물 :
 - 양씨(55세) : 김 노인의 며느리. 과부. 심술궂고 얄밉다. 입이 가볍고 너그러운 맛이 적다.
 - 최씨(45세) : 사월의 어머니. 과부. 성격이 급하고 말이 많다. 쉽게 흥분하며 화도 잘 낸다.
 - 김 노인 : 시도 때도 없이 밥을 달라고 한다. 전쟁으로 인해 먹고사는 일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상징한다.
 - 귀덕 : 양씨의 딸. 전쟁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이상이가 되어 마을에서 등신 취급받으며 살아간다.
 - 사월(26세) : 점례의 친구. 과부. 최씨의 딸. 규복이와 관계를 맺어 임신하며 이 사실이 발각된 후 자살한다.
 - 점례(28세) : 양씨의 며느리. 과부. 규복을 놓고 사월이와 삼각 관계를 이룬다.
 - 규복(30) : 공비. 전직 교원

#EBS

해제

이 작품은 5막으로 이루어진 장막 희곡으로,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동족 분단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6·25전쟁으로 인해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의 애육을 표현한 사실주의 극이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질과 존엄성을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극의 제목이기도 한 '산불'은 전쟁의 비극을 보여 주는 장치로 사용되는데, 산불로 인해 규복이 죽고, 점례와 사월은 사랑하는 이를 잃으며, 양 씨는 아들에게도 내주지 않았던 대밭을 잃고, 최 씨는 딸 사월의 자살로 가족을 잃는다. 이는 한 마을의 비극이지만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으로 일반화하여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빚은 비극과 인간의 본원적 욕망

전체줄거리

소백산맥의 어느 산골에 노인 하나와 여인네들만 사는 마을이 있다. 전쟁으로 인해 마을 남자들 대부분이 죽거나 끌려갔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점례는 빨치산에서 탈출하여 마을로 온 규복을 몰래 자기네 대밭에 숨겨 주고 규복과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러나 둘의 관계는 곧 사월에게 발각되고, 사월은 점례를 협박한다. 이에 점례는 규복을 사월에게 양보하고 갈등한다. 이후 사월은 규복의 아이를 갖게 되고, 마을에는 공비 소탕을 위해 국군이 들어온다. 국군은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산에다 불을 지르고 급기야 규복이 숨어 있는 마을 대밭에까지 불을 지른다. 결국 규복은 국군의 총에 맞아 죽고 사월은 자살한다.



차범석, 「산불」

사병 A: 여러 아주머니들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대대적으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공비들이 숨을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다볼 때 환히 보일 수 있어야만이……. ↳ 대밭을 태워야하는 이유
 (군중들은 그 참 뜻을 알았다는 듯 수궁을 한다.)

우연히 빨치산이 되었다 탈출한 교사 출신의 규복을 점레가 숨겨 줌으로써 극의 중심 갈등이 만들어지는 공간이자
 ↳ 인물들이 '대밭'과 다양한 관련을 맺으며 '대밭'에 각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곳

양 씨: 그렇지만 저 대밭만은 안 돼요.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 내려온 대밭을 내 눈앞에서 불사르다니 그게 될 말이요. 차라리 나를 죽이고 나서 해요. ↳ 대밭을 태우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사병 B: (딱하다는 듯) 몇 차례 설명하면 알겠소? (사병 A에게) 자, 가세. - 단호한 태도로 양씨의 요구를 묵살함
 (두 사람이 우편 대밭 쪽으로 가려고 하자 점레가 길을 가로막는다.) - 대밭에 숨어 있는 규복을 지키려함

↳ 양씨의 며느리. 전쟁통에 남편을 잃음.

점레: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사병 A: 당신은 또 뭐야?

점레: (빌면서) 그 대밭만은 태우지 말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식구를 살리려거든 대밭을 살려 주세요
 (점레의 진실한 태도에 모두들 절박감을 느낀다.)

↳ 마을 사람들

사병 A: 군대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 전체의 뜻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리 비키시오.
 점레: 제발! 소원이예요. (하며 매달리자 양 씨는 사병 B에게 매달린다.)

양 씨: 여보시오! 『당신네 집에선 제사도 조상도 모르오? 제발 우리 사정 좀 봐줘요. 내 아들이 팔아서 장사하겠다고 조를 때도 내가 싫다고 우긴 대밭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 양씨의 아들: 우익으로 공산 치하에 반동으로 몰려 죽임을 당함
『: 양씨의 대밭에 대한 애착을 호소

사병 B: (획 뿌리치며) 어서 가……. (하며 급히 뛰어가자 사병 A도 급히 뒤를 따른다.)

점레: (미칠 듯이)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 자신이 숨겨 준 규복이 대밭에 있기 때문

양 씨: 아이고! 우리 집이 망한다! 우리 집이……. (하며 덤비자 옆에서들 말한다.)

(잠시 후 총소리가 연달아 일어나자 대나무에 불붙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퍼져 나온다. 점레와 양 씨는 낯 나간 사람처럼 말없이 뒷걸음을 쳐 간다. 거기엔 절망이라기보다 공허감이 더 짙다.)

쌀레네: 정말 아까운 대밭이었는데…….

이웃 아낙 을: 이게 얼마 있으면 죽순이 한창일 터인데…… 아깝지…….

이웃 아낙 갑: 어이구…… 우리 살림은 하나씩 없어지지만 하고 느는 것은 나이뿐이니……. - 부조리한 현실

(하늘엔 불꽃이 모란보다 더 곱게 물들어 간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인다. 험험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그저 허만 차고 있는 허탈한 얼굴들.) ↳ 현실의 비극적인 상황과 대비됨

점레: (갑자기 일어서며) 선생님! 선생님! 안 돼요. (하며 뛰어가려 하자 몇 사람이 붙들고 말린다.)

↳ 자신이 숨겨 준 규복

쌀레네: 참어! 점레! 정신을 차리라니까.

점레: 나도 같이 타 죽을 테야. 대밭으로 보내 줘.

↳ 점레가 규복을 사랑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함

양 씨: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아이구, 이 자식아.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네 말대로 팔아나 버릴 것을.

↳ 대밭을 팔자고한 양씨의 죽은 아들

(이때 “저놈 잡아라.”, “누구야.” 하며 외치는 군인들의 목소리. 그와 함께 총소리가 연달아 일어난다. 모두들 겁에 질려서 오른편으로 물러간다. 점레는 그 자리에 서 있다.)

쌀레네: 무슨 소리야? ↳ 규복이 대밭에 은신해 있던 사실을 모름

이웃 아낙 을: 누가 있었나 보지? (이때 방에서 김 노인이 나온다.)

김 노인: 오늘은 귀가 신통히도 잘 들리는구나. 무슨 사냥이냐? 멧돼지 고기에 소주는 제맛이다만…….

(이때 사병 A와 B가 총에 맞아 의식을 잃은 규복을 질질 끌고 나온다. 군중들 사이에 새로운 파동이 퍼진다. 규복을 마당 복판에 놓힌 다음 사병은 군중을 휘돌아본다.) ↳ 전직 교사이자 빨치산 공비 ↳ 뜻밖의 사건을 맞닥드린 마을 사람들

사병 A: 이 사람이 누구요?

(아무도 대답이 없다.)

사병 B: 이 마을 사람이 아니오?



차범석, 「산불」

이웃 아낙 갑: 우리 동네에서 사내 냄새가 없어진 지는 벌써 이태나 된 걸요. - 마을이 과부촌임. 마을 사람들은 규복을 모르고 있음.

(사병 두 사람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뭐라고 수군거린다.)

이웃 아낙 을: 정말 귀신 곡할 일이지. 그 대밭 속에 사내가 숨어 있었다니.

이웃 아낙 갑: 혹시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닐까?

(사병 A가 급히 한길 쪽으로 퇴장한다.)

사병 B: 대밭에다 움을 파고 오랫동안 살아온 흔적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요?

(서로가 고개를 좌우로 젓는다. 점례는 멍하니 내려다보고만 있다.) - 규복이 죽은 충격에 빠져있음

양 씨: 우리 대밭에 사내가? (점례에게) 너도 못 봤지?

점례: (고개만 저를 뿐 대답이 없다.)

최 씨의 딸 사월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퍼져있음 : 『』

쌀레네: 이상한 일이지……. (하다 말고 양 씨에게 눈짓을 하자 그것이 무슨 전염병처럼 퍼져 『최 씨에게 집중된다』.)

최씨의 사위(사월의 남편)은 좌익으로 빨갱이로 몰려 죽음을 당함. 이 때문에 양씨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사이. ㄴ

(아까부터 반신반의의 상태에 있던 최 씨는 자기에게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식하자 화를 낸다.)

ㄴ 최 씨 역시 총을 맞은 남자와 자신의 딸 사이를 의심하고 있음

최 씨: 왜 나만 보고 있어? (사이) 옳지. 내 딸이 이 사내하고 정을 통했던 말이지? 좋아. 그럼, 내가 데리고 나와서 결판을 지을 테니. (하며 사월이 이름을 부르며 자기 집으로 들어간다.)

(이때 가까이 와서 시체를 들여다본 김 노인이 무릎을 탁 치며 소리를 지른다.)

김 노인: 이놈은 바로 새로 들어온 머슴이구먼. - 극의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 시키는 대사 ①

일동: (약속이나 한 듯) 머슴?

양 씨: (큰 소리로) 아버님 아는 사람이예요?

김 노인: 응…… 우리 집 머슴 아니냐?

양 씨: 노망했어, 노망! 우리가 머슴 부릴 팔자예요?

(일동은 크게 웃는다. 이때 최 씨의 비명 소리가 들리며 그녀가 밖을 내다본다.)

최 씨: 사람 살려요! 우리 딸이…… 우리 딸이……. - 사월이 양젓물을 먹고 죽음

쌀레네: 사월이가?

(군중들, 우 하니 그쪽으로 몰려간다. 최 씨의 통곡 소리가 높아 가고 아기 우는 소리도 간간이 들린다.)

이웃 아낙 갑: 양젓물을 먹었어? 저런…….

ㄴ 장면의 비극성을 심화

ㄴ 서양에서 온 젓물. 빨래하는 데 쓰이는 수산화나트륨을 이룸.

(점례는 말없이 규복의 시체 옆에 다가와서 손발을 받듯이 제자리에 놓는다.)

사병 A: 손을 대지 마요.

점례: (거의 무표정하게) 내가 손을 댔다고 시체가 되살아나서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은 재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하며 서서히 일어선다.)

ㄴ 허무와 상실의 정서

(하늘이 피보다 더 붉게 타오르자 규복의 얼굴에도 반영되어 한결 처참하게 보인다. 멀리서 까치 우는 소리. 마루끝에 앉아 있던 김 노인이 또 밥을 재촉한다.) ㄴ 장면의 비극성을 심화

김 노인: 밥은 아직 멀었냐? 오늘은 귀가 터진 것 같구나. - 극의 긴장을 일시적으로 완화 시키는 대사 ②

(최 씨의 곡성이 높아 간다.)

- 막 -

#작품의 특징

- 6·25전쟁으로 희망이 깨져버린 한 젊은이와 그를 둘러싼 애욕을 표현한 사실주의극
- 이데올로기에 의한 동족분단과 파괴와 살상의 잔악한 전쟁 속에서 인간의 본질과 존엄성을 표현
- 6·25 전쟁의 한 단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면서 이데올로기보다 우위에 선 사랑의 가치를 형상화한 작품
- 산불은 과부촌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6·25로 인한 우리 민족 전체의 비극을 상징
- 분단과 전쟁을 한 마을에다 몰아 놓고 조명하며 인간의 원초적 애욕을 극히 자연스럽게 가미시킴으로써 작품을 밀도 있게 구성
- 당시 사회의 당면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고발하고 일상어를 이용하였으며 사건의 인과율을 놓치지 않고 유전과 환경을 재현했다는 점에서 사실주의적인 특성을 지님을 알 수 있다.
- 과부촌의 이야기가 열려진 채 결말이 유보되는 것은 현실에서는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주의의 인식과 상통한다.



최석환, 「라디오 스타」

- 갈래 : 시나리오
- 성격 : 감동적, 희극적
- 배경 : 시간 : 2000년대 초 / 공간 : 강원도 영월
- 제재 : 라디오 방송
- 주제 : 철없는 가수와 매니저 사이의 우정

#EBS

해제

이 작품은 2006년 개봉한 영화 「라디오 스타」의 시나리오이다. 한때 잘나갔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가수로 전락한 주인공과, 변함없이 그 옆을 지키는 매니저 간의 우정과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 주고 있다. 제시문은 주인공 최곤이 진행하던 지방 방송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김 양이 등장해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털어놓는 대목으로, 이 사건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는 계기가 된다.

주제

인생의 굴곡에서도 변치 않는 따뜻한 인간애와 우정

전체줄거리

한때 가수왕을 차지하며 큰 인기를 얻었던 최곤은 대마초 사건 등에 연루되면서 별 볼 일 없는 가수로 전락한다. 20년이 지나 미사리 카페촌에서 노래를 부르며 생활하던 최곤은 손님과 시비가 붙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된다. 최곤의 매니저 박민수는 지방 방송국의 국장을 만나 영월에서 라디오 디제이를 한다는 조건으로 최곤의 합의금을 구한다. 지방 방송의 디제이 자리를 우습게 여기고 무성의하게 방송을 진행하던 최곤은 다방 종업원 김 양을 즉석 초대 손님으로 부르는데, 김 양의 사연이 예상과 달리 큰 호응을 얻고 최곤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영월의 명물로 자리 잡는다. 점차 인기를 더해가던 중에 서울의 대형 기획사에서 최곤을 스카우트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매니저 박민수와 결별하게 된다. 하지만 최곤은 박민수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 없어 하며 박민수와 재회하게 된다.

#작품의 특징

- 대사와 제시문을 활용하여 인물들의 정서와 사건의 전개를 드러낸다.
- 다양한 일상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독자들이 친근감과 실제감을 느끼도록 한다.
- 일반적인 기준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인물들이지만 그들이 서로를 돕고 지켜나가는 인간성과 우정은 감동을 준다.
- 시민들의 애환을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 전단함으로써 변해가는 세태속에서도 남아 있는 인정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이 극의 내용과 어우러져 감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최석환, 「라디오 스타」

S# 39. 방송국 전경(낮)

↳ scene number

↳ 김추자의 노래와 어울림과 동시에 뒤이은 김 양의 사연과 관련됨.

김추자의 「빛속의 여인」 흐르는 가운데 방송국 건물이 비에 젖고 있다. 카메라 스튜디오 창가로 다가가면 석영이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다. 노란 우비를 입은 한 여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방송국 입구를 지나 방송국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다.

↳ 김 양, S#39와 S#40을 연결

S# 40. 라디오 스튜디오(낮)

김추자의 「빛속의 여인」 계속 흐르고……. 창밖을 보던 석영이 고개를 돌려 부스를 보면 최곤과, 박민수까지 짬뽕을 먹고 있다.

↳ 김 양에게 어머니를 떠올리게하는 매개체

배달부 장 씨, 부스 안에서 최곤의 헤드폰을 끼고 음악에 흠뻑 취해 있다. 석영, 포기하는 표정으로 다시 창밖을 바라본다. 그때 김 양이 문을 열고 들어선다. ↳ 라디오 프로그램의 담당 프로듀서. 최곤의 행동을 못마땅해함.

김 양: (낭랑한 목소리로) 커피 시키신 분.

박민수: (부스 안에서 마이크 통해) 여기.

하고 손을 흔든다.

(jump*) 김추자의 「빛속의 여인」 계속 흐르고 있다. 최곤, 김 양이 배달해 온 커피를 마시고 있다.

김 양, 김추자의 「빛속의 여인」에 젖어 든다. 석영이 최곤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 석영과 최곤의 사이가 좋지 않음.

김 양: 아저씨, 이 노래 한 번만 더 틀어 주면 안 돼?

최곤, 보면

김 양: 안 돼요? 우리 다방은 리필해 주는데.

최곤: 그러지 뭐.

김 양: 난 이 노래 들으면 엄마 생각나더라. 우리 엄마 십팔번이거든.

그때 석영이 들어온다.

석영: 나와요.

김 양: 손님 다 마실 때까지 옆에 있는 거예요.

노래 끝나 간다. 최곤을 노려보던 석영이 나가려는 순간,

최곤: (석영 들으란 듯) 너 엄마한테 한마디 할래? - 석영을 도발하는 최곤의 행동. 김 양의 사연이 라디오에 방송되는 기회를 제공

최곤 말에 깜짝 놀라는 김 양.

김 양: 아저씨 뭘 이야기를 해?

최곤: 엄마 십팔번이라며. 엄마 이야기해.

석영, 멈춰 돌아보고 노래 완전히 끝난다.

최곤: (마이크 올리고) 오늘은 애청자 중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 석영과 최곤의 사이가 좋지 않음. 사전 계획에 없던 최곤의 즉흥적인 행동. 김 양이 라디오에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게 함.

밖에서 듣고 있던 박민수와 박 기사가 놀란다. 최곤, 김 양에게 얘기하라고 손짓한다. 석영, 화난 표정으로 최곤을 바라본다.

김 양: (마이크 앞으로 다가오며) 안녕하세요? 저는 요 앞 터미널 바로 건너편 터미널 다방에 근무하는 김 양입니다.

INS.* 터미널 다방. 다방 안 스피커에서 김 양의 목소리가 나오자 다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란다.

↳ 김 양이 일하는 다방. 이 후의에 나오는 철물점과 세탁소와 연결됨.

최석환, 「라디오 스타」

박 양: 김 양이다.

손님 1: 재 저기서 뭐하는 거냐?

김 양 (E.*): 저, 먼저…… 평소 티미널 다방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구요.

김 양의 말에 다방 손님들과, 특히 사장이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

김 양 (E.): 세탁소 김 사장님하고 철물점 박 사장님, 이번 달에는 외상값 꼭 갚아 주세요. 김 사장님 4만 7천원이구요…….

INS. 영월 시내 세탁소 내부. 세탁소 사장, 라디오에서 나오는 김 양의 얘기를 듣다 놀란다.

↳ 김 양의 대사에 등장하면서 다방, 철물점과 연결됨

김 양: 철물점 박 사장님…… 맨날 쌍화차 드셔서 좀 많은데…… 10만 4천 원인데…… 4천 원 까고 10만 원만 받을게요.

INS. 영월 시내 철물점. 철물점 사장, 라디오에서 나오는 김 양의 얘기를 듣고 당황한다. 옆에서 철물들을 정리하던 사장의 와이프가 남편을 췌려본다. ↳ 세탁소, 다방과 연결

김 양: 안 갚으시면 제 월급에서 까지는 거 아시죠?

스튜디오, 김 양의 말 계속 이어진다.

김 양: (잠시 뜬다) 엄마, 나 선옥인데…… 나 방송 출연했거든. 엄마, 잘 있지?

↳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순간의 긴장감.

↳ 최근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시

석영,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는 표정으로 최근을 노려본다. 최근, 석영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김 양에게 계속 말하라고 손을 흔든다. 김 양, 잠시 말을 멈추더니 표정이 무거워진다. -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밝은 내용이 아님을 암시

김 양: 『엄마, 비 오네. 엄마, 기억 나? 나 집 나오던 날도 비 왔는데. 엄마, 알어? 나 엄마 미워서 집 나온 거 아니거든. 그때는 내가

↳ 비내리는 장면과 김 양의 사연이 연관성

↳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며 감동을 불러일으킴

엄마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울음을 삼키며) 집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 다 밋고, 엄마만 안 미웠어…….

그래서 내가 미웠어. 엄마, 나 내가 너무 미워서…… 좀 막 살았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더 미워.』

『: 김 양의 사연이 서술됨.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음

김 양을 뼈뱀하게 바라보는 석영의 표정이 동정으로 변한다.

↳ 최근의 돌발적인 행동에 화가 나서 김 양을 불쾌하게 생각했지만 그녀의 사연을 듣고 바뀌게 됨

INS. 지국장실. 라디오에서 나오는 김 양의 사연을 듣고 있는 지국장의 표정 슬프다.

↳ 엄마에 대한 김 양의 그리움을 표현하는 소재

김 양: 엄마, 나 비 오면 엄마가 해 주던 부침개 해 보거든. 근데 엄마가 해 주던 것처럼 맛있게 안 돼.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봤는데 잘 안 돼. 엄마,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하고는 무너져 테이블에 고개를 묻고 흐느낀다. 최근이 김 양을 바라보다 김추자의 「빛속의 여인」을 내보낸다. 김 양의 흐느낌이 노래에 묻힌다. 최근, 부스를 나온다. 석영이 김 양을 측은하게 바라본다. 최근이 창가에 선 박민수에게다가 가가면 박민수의 눈이 젖어 있다. - 최근의 매니저인 박민수도 김 양의 사연에 감동을 받음.

최근: 뭐야?

박민수: 장마가 지려나? - 눈시울을 적신 자신의 모습을 최근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함.

박민수, 괜히 목을 빼고 창밖을 바라본다.

*jump : 시나리오 용어. 같은 신 내에서 의도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끊는 편집 방식을 의미함.

*INS.(Insert) : 시나리오 용어. '일련의 화면 중간에 삽입된 화면'을 의미함.

*E.(Effect) : 시나리오 용어. '효과음'을 의미함.



이해준, 「김씨 표류기」

- 갈래 : 시나리오
- 성격 : 상징적, 서사적
- 제재 : 현대, 서울 (밤섬, 여자 김 씨의 방안)
- 주제 : 현대인의 소외와 소통에 대한 회구

#EBS

해제

이 작품은 우연히 한강의 밤섬에 표류하게 된 남자 김 씨와 그의 표류 생활을 지켜보는 여자 김 씨의 이야기를 담은 시나리오이다. 남자 김 씨는 사회에서 낙오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우연히 한강의 밤섬에 표류하게 된다. 여자 김 씨는 가족과의 대면을 피할 정도로 스스로를 사회와 철저히 격리한 채 방 안에서만 은둔하며 살아간다. 처지와 이유는 다르지만 두 사람은 모두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되어 살아간다는 점에서 서로 닮아 있다. 제시문은 여자와 남자가 모래사장에 글을 쓰거나 와인병에 편지를 담아 보내면서 소통을 하는 과정, 남자가 짜장면을 만들어 먹는 장면을 보여 준다. 이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하며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연다. 작가는 이를 통해 저마다의 공간에 갇히거나 스스로를 가둬 세상과 단절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

주제

현대인의 소외와 소통에 대한 회구

전체줄거리

회사에서 정리 해고를 당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던 남자 김 씨는 한강에서 자살하려다 실패하고 무인도인 밤섬에서 깨어난다. 여자 김 씨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신의 방에만 틀어박혀 사이버 세계에서 실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어느 날 여자는 사진을 찍다가 밤섬에 표류한 남자를 발견하고 그를 관찰하기 시작하고 이들은 모래사장에 글자를 남기거나 편지를 와인병에 담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소통하기 시작한다. 밤섬에서의 생활에 적응한 남자가 어느 날 짜장 라면 가루를 발견하고 짜장면을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한다. 남자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낀 여자는 짜장면을 배달시켜 남자에게 보내지만 남자는 이를 돌려보내고 직접 농사를 지어 마침내 짜장면을 만들어 먹는다. 남자는 여자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여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폭풍으로 인해 밤섬에서 가꾸어 온 자신의 터전을 모두 잃은 남자는 환경 관리원에게 붙잡혀 밤섬 밖으로 끌려 나온다. 여자는 남자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와 거리를 헤맨다. 멀리서 버스에 오르는 남자를 발견하지만 달리는 버스를 따라잡지 못하는데, 때마침 민방위 사이렌이 울려 남자가 탄 버스가 멈추고, 여자가 버스를 향해 달려가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

#작품의 특징

- 등장인물이 속해 있는 공간들은 인물의 유사성을 드러내며 인물의 심리와 사건 전개에 연관된다.
- 밤섬(남자)과 방 안(여자) 모두 소통의 부재로 인해 고립된 현대인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공간이다.
-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남자’, ‘여자’, ‘김 씨’와 같은 말을 통해 현대 사회의 익명성을 드러낸다.
- 밤섬에 고립되어 사는 남자의 모습을 ‘표류,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살아감의 막막함을 느끼는 현대인의 보습을 비유
- 상징적인 소재(와인병, 모래사장의 글자, 짜장면)를 사용하여 현대인의 소외와 소통에 대한 욕구라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



이해준, 「김씨 표류기」

[앞부분의 줄거리] 빛 독촉에 시달리던 남자 김 씨는 한강에서 투신하려다 우연히 살아남아 무인도인 밤섬에서 깨어난다. 밤섬에
 ↳ 남자 김 씨의 본명은 김승근, 여자 김 씨의 본명은 김정연. 성 으로만 지칭하며 일반화와 익명성을 드러냄.
 이는 누구나 고립될 수 있고, 또 이미 고립되어 있음을 의미.

서 탈출하려던 남자는 버려진 오리 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살아간다. 어느 날 쓰레기 속에서 짜장 라면 양
 념 가루를 발견한 남자 김 씨는 짜장면이 먹고 싶어져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한편 여자 김 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방에
 만 틀어박혀 지낸다.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방 안에서 사진 찍기인데, 우연히 밤섬 쪽을 찍다가 남자 김 씨를 발견한다. 그 후 여
 자 김 씨는 남자 김 씨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와인병을 이용하여 편지를 보내는 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S# 75. 숲 (낮) 『: 누구에게나 있는 소통의 욕구와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 드러냄 ①

숲속. 『어딘가에 파묻혀 있는 와인병』. 화면 안으로 남자의 손이 드러나며 와인병을 집어 든다. 보면, 한참 동안 숲을 뒤진 듯 남
 자의 물결이 말이 아니다. 헉헉헉……. 마침내 발견한 와인병에 뿔 듯이 기쁜 남자. 꿀딱 마른침을 삼키고, 급하게 뚜껑을 열어 병
 ↳ 남자가 와인병을 애타게 차고 있었음

안에 든 종이를 꺼낸다. 마음을 애써 진정하며 돌돌 말린 종이를 펴는 남자. 도저히 믿기지 않는 다는 듯한 남자의 표정. 남자의
 손에 들린 종이 위에는 인쇄된 글씨, 'FINE, THANK YOU AND YOU?'가 적혀 있다.

↳ 여자 김씨가 밤섬의 남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소통을 하려는 여자의 노력.

S# 76. 모래사장 (낮)

『: 누구에게나 있는 소통의 욕구와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 드러냄 ③

『모래사장에 글씨를 쓰고 있는 남자. / 남자가 쓰고 있는 글씨는, 'FINE, THANK YOU.'』

↳ 누구에게나 있는 소통의 욕구와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 드러냄 ②

↳ 편지를 보낸 여자에게 전하는 남자의 답장

S# 77. 밭 (오후)

언제나처럼 말없이 서 있는 허수아비. 그 앞에서 쪼그리고 앉은 남자는 웬일인지,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하고 있다. 뭔가 기억이
 안 난다는 듯. 그러던 순간, 기억이 떠오른다.

남자: 『아, 맞다. 마니또. 왜 우리 어렸을 때 마니또 게임이라고 있었잖아. 누군지 모르는 애한테서 편지도 받고, 선물도 받고. 누
 굴까 궁금해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응? 근데 누군지 막상 알게 되면, 또 그냥 그렇고 그래. (배시시) 그러니까, 마니또 게임
 은 누군지 모르고 있을 때, 딱 그때가 좋은 거야. 그치? 아, 펜팔! 펜팔도 그런 거잖아!』

『: 허수아비를 상대로 대화를하며 편지를 보낸 존재에대해 궁금해하고 설레어 한다.

허수아비: …….

남자: 맞아, 그럼 되는 거야. 그치? 누군지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안 그래?

이때, 허수아비의 머리가 바람에 슬며시 돌아간다. 그 품새가 영락없는 외면. 남자, 갑자기 정색하며 일어선다.

남자: 근데 이 자식은 요즘, 내 말 부쩍 무시하더라? - 무인도에 살며 허수아비를 말동무로 삼게 된 남자의 모습

남자, 허수아비 얼굴을 잡고 돌리려는데, 허수아비 뒤로 비쪽 튀어나온 잎사귀. 남자가 천천히 허수아비를 뿔으면 어느 틈에 자
 란 키 큰 식물은, 이제 막 열매를 맺기 시작한 옥수수. 바라보던 남자의 표정이 점점 환해지기 시작한다.

↳ 우연히 발견한 옥수수를 보고 기뻐하는 남자의 모습

남자: 옥수수…… 옥수수! (허수아비를 향해) 봤어? 옥수수! 어?

허수아비: …….

남자: (다시 가까이 보고는) 우하하! 옥수수! - 고립된 밤섬에서 짜장면을 스스로 만들어 먹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남자는
 옥수수가 자신의 바람을 완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더욱 기뻐하는 것.

남자, 허수아비를 번쩍 집어 들고는 와락 껴안는다.

남자: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우리가 기적을 만들었다! 우하하하! 옥수수다아!

남자, 허수아비를 번쩍 들어 왈츠를 추듯 빙글빙글 돈다. - 옥수수를 발견한 것이 남자에게 큰 기쁨임을 알 수 있음.

밭 한가운데 그렇게 빙글빙글 돌며 환호하는 남자와 허수아비.

(중략)



신영복,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 갈래 : 수필
- 성격 : 사색적, 교훈적, 유추적, 반성적, 주관적, 설득적
- 배경 : 수험생에 대한 격려
- 주제 : 진정한 삶의 발견의 중요성, 구체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감의 중요성

#EBS

해제

이 글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앞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 편지 형식으로 쓴 수필이다. 이 글에 등장하는 ‘당신’은 표면적인 의미로는 대학에 예비 합격한 수험생이지만, 내면적인 의미로는 이론에만 집착하고 실천을 중요시하지 않는 등 중요한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겉모습과 형식에 집착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글쓴이는 세상에 나아갔을 때 중요한 것은 성적, 실력 등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대이며, 이론과 실천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간결하고 짧은 문장들을 사용하여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으며, 함축적이고 암시적인 성격의 문장들을 사용하여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주제

삶의 본질을 추구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당부함.

구성

- ▶ 기: 목수인 노인에게서 얻은 깨달음과 차치리의 일화
- ▶ 승: 본질적인 것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
- ▶ 전: 대학에서 만나게 될 자유와 낭만의 의미
- ▶ 결: ‘당신’의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

#작품의 특징

- 문헌에 나오는 고사에 자신의 체험을 비추어 자신을 성찰하고 있고, 상반된 삶의 방식을 대조한다.
- 차분하고 설득적인 어조로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 독자를 받는 사람으로 설정한 편지 형식의 글
- 지나치게 쉬운 사소한 체험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신영복,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 구체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도리·들보·사까래·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 기존의 잘못된 추상적 관념에 의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삶의 체험으로부터 진리를 체득한 사람이 그리는 그림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 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나의 서가(書架)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 책을 엮어 두는 시령으로 여러 단으로 된 책꽂이로 여기서는 나의 이론을 뜻함

『: 실천보다는 이론을, 구체적인 일보다는 추상적인 관념에 젖어 있던 자신의 가치관이 허위적인 관념이었음을 부끄러워함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차치리(且置履)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하여 발의 크기를 본(本)으로 떴습니다.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

↳ 한비자에 나오는 인물로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로 여기서는 구체적인 진리보다는 추상적인 관념에 매달리는 사람

을 올려놓고 발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한자(漢字)로 그것을 탁(度)이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박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다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가갔습니다.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장이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탁을 가지러 집에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소. 당신의 발로 신어 보면 될 일이 아니오.”

차치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 차치리는 원본보다 모사본을 맹신하고 있음.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이 발로 신어 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 노인이 구체적 삶의 체험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기존의 관념에 젖어 전도된 가치관을 추구

탁(度)과 족(足), 교실과 공장, 종이와 망치, 의상(衣裳)과 사람, 화폐와 물건, 임금과 노동력, 이론과 실천……. 이러한 것들이 뒤

↳ 탁은 허위의 가치를, 족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의미

바뀌어 있는 우리의 사고(思考)를 다시 한번 반성케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진정한 애정이 아닙니다. 위로는 그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연케 함으로써 다시 한번 좌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대학의 강의실에서 이 편지를 읽든 아니면 어느 공장의 작업대 옆에서 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건 탁이 아닌 발을 상대하고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 탁[이론]이 아닌 발[실전]

만일 당신이 사회의 현장에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살아 있는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대학의 교정에 있다면 당신은 더 많은 발을 깨달을 수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학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중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연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못 했던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학이 안겨 줄 자유와 낭만에 대한 당신의 꿈을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얽매어 있던 당신의 질곡(桎梏)을 모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러한 꿈이 사라졌다고 실망하고 있거나 않은지 걱정됩니다.

↳ 옛 형구인 차꼬와 수갑.

↳ 몹시 속박하여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의 상태

그러나 ‘자유와 낭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낭만은 ‘관계의 건설 공간’이란 말을 나는 좋아합니다. 우리들이 맺는 인

↳ 새로운 공간을 생성하는 공간.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려는 의미.

간관계의 넓이가 곧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낭만의 크기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日常)에 내장되어 있는 『‘안이한 연루(連累)’를 결별하고 사회와 역사와 미래를 보듬는 너른 품을 키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 남이 일으킨 행위나 사건에 걸려들어 죄를 덮어쓰거나 피해를 입게 됨 『: 대학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①

그러하여 당신이 그동안 만들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게 해 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만나는 연대의 장소입니다. 우리 사회를

↳ 대학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②

↳ 대학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③

지탱하고 있는 발의 임자를 깨닫게 하는 ‘교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학이 아닌 다른 현장에 있다면 더 쉽게 그들의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수능 시험 성적 100점은 그야말로 만점인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올해 당신과 함께 고등학교를

↳ 글쓴이는 평균점수를 가장 이상적인 성적으로 보고있음.

↳ 평균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한복판에서 관계를 넓혀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이상적이라고 생각.

졸업한 67만 5천 명의 평균 점수입니다. 당신은 친구들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은 풍요한 자리입니다. 수많은 곳,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자유와 낭만은 없습니다.



신영복,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

언젠가 우리는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더듬다가 넓고 밝은 길로 나오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실개천도 이윽고 강을 만나고 드디어 바다를 만나는 진리를 감사하였습니다. 주춧돌에서부터 집을 그리는 사람들의 견고한 믿음입니다. 당신이 비록 지금은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발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한 언젠가는 넓은 길, 넓은 바다를 만나리라 믿고 있습니다. 드높은 삶을 '예비'하는 진정한 '합격자'가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어디쯤에서 당신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정, 「설해목」

- 갈래 : 수필
- 성격 : 교훈적, 사색적
- 제재 : 설해목
- 주제 : 부드러운 것의 강함

#EBS

해제

내린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진 나무를 ‘설해목’이라고 한다. 한없이 부드럽고 유약한 눈송이라도 그것이 한없이 쌓이면 큰 나무의 가지가 부러지고 심지어 뿌리가 흔들리기도 한다. 이 작품은 이러한 ‘설해목’을 소재로 인간의 삶에서 진정한 강인함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

주제

부드러움이 지닌 힘

구성

- ▶ 1~5문단: 노승의 다사로운 손길에 감동한 더벅머리 학생
- ▶ 6~7문단: 부드러운 눈에 꺾이는 아름드리나무
- ▶ 8문단: 자비와 사랑에 감복한 살인귀
- ▶ 9문단: 부드러운 물결이 만든 둥근 조약돌



법정, 「설해목」

해가 저문 어느 날, 오막살이 토굴에 사는 노승 앞에 더벅머리 학생이 하나 찾아왔다. 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꺼내면서 그는 사뭇 불안한 표정이었다. - 노승의 훈계가 있을거라고 예상

사연인즉, 이 망나니를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 스님이 알아서 사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물론 노승과 그의 아버지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 편지의 내용 ↳ 노승의 다사로운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 ①

편지를 보고 난 노승은 아무런 말도 없이 몸소 후원에 나가 늦은 저녁을 지어 왔다. 저녁을 먹인 뒤 발을 씻으라고 대야에 가득 더운물을 떠다 주었다. 이때 더벅머리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 노승의 다사로운 마음을 드러내는 소재 ②

↳ 노승의 다사로운 마음에 감동함

『그는 아까부터 훈계가 있으리라 은근히 기다려지기까지 했지만 스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시중만을 들어 주는 데에 크게 감동한 것이다. 훈계라면 진저리가 났을 것이다. 그에게는 백천 마디 좋은 말보다는 **다사로운 손길**이 그리웠던 것이다.

이제는 가고 안 계신 **한 노사(老師)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내게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노사의 모습이다.

↳ 삽화 형식을 활용한 내용 전개

산에서 살아 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겨울철이면 나무들이 많이 꺾인다. 모진 비바람에도 끄떡 않던 아름드리나무들이, 곳곳하게 고집스럽기만 하던 그 소나무들이 눈이 내려 덮이면 꺾이게 된다. 가지 끝에 사뽀사뽀 내려 쌓이는 그 가볍고 하얀 눈에 꺾이고 마는 것이다.

깊은 밤,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나무들이 꺾이는 메아리가 울려 올 때, 우리들은 잠을 이룰 수 없다. 정정한 나무들이 부드러운 것 앞에서 넘어지는 그 의미 때문일까. 산은 한겨울이 지나면 **얇고** 난 얼굴처럼 수척하다. - 설해를 입고 난 산의 모습

사뽀티의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살인귀 양굴리말라를 귀의시킨 것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아니었다. 위엄도 권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비**였다. 아무리 흉악무도한 살인귀라 할지라도 차별 없는 **훈훈한 사랑** 앞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다.』

『: 부드러움을 드러내는 소재: 손길, 눈, 부처님의 자비, 훈훈한 사랑, 물결

강함을 드러내는 소재: 훈계, 비바람, 부처님의 신통력, 위엄과 권위, 무쇠로 된 정

#작품의 특징

- 노승이 자신에게 맡겨진 학생에게 사랑을 가르쳐가는 과정을 통해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강함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이라는 역설을 형상화
- 체험에서 우려나온 삶에 대한 통찰을 자연 현상과 결부시키는 유추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 일상의 언어를 감각적으로 구사하여 자연의 정경을 생생히 묘사함.
- 예화를 제시 한 뒤 주제를 이끌어 내는 우의적 수법을 사용함.



이강백, 「복어 대가리」

- 갈래 : 희곡, 단막극
- 성격 : 상징적, 풍자적
- 배경 : 시간 - 현대 / 공간 - 창고
- 제재 : 상자, 복어 대가리
- 주제 : 산업 사회에서 방향성을 상실한 채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과 소외

#EBS

해제

이 작품은 창고지기인 자양과 기입을 통해 개별화되고 획일화된 산업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인간 소외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희곡이다. 용도를 알 수 없는 부속품이 담긴 상자를 창고에 쌓았다가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일만 반복하는 자양과 기입은 주체성을 상실한 채 단순한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부속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창고 밖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트럭 운전자 또한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상실한 채 단순한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들의 모습은 주체성을 상실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자양은 기입이 떠나고 혼자 남은 창고에서 복어 대가리를 보며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 회의한다. 하지만 자양은 결국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이러한 자양의 모습은 판단력과 주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복어 대가리는 그러한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주제

개별화되고 획일화된 산업 사회에서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풍자와 비판

전체 줄거리

자양과 기입은 같은 창고에서 오랜 세월 동안 상자를 쌓고 나르는 일을 했지만, 성실한 자양과 달리 기입은 창고지기의 일을 게을리한다. 기입은 창고 밖의 생활에 더 관심을 두다가 상자를 실어 나르는 트럭 운전수의 딸인 다령을 좋아하게 된다. 기입을 따라 창고에 온 다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양에게 호감을 드러내지만, 자양은 그러한 다령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단순하게 반복되는 창고지기 삶에 싫증을 느낀 기입은 다령의 제안으로 상자 하나를 일부러 잘못 보내 놓고 자양에게 알려 준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양은 불안한 마음에 상자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트럭 운전수에게 배달을 부탁하지만, 트럭 운전수는 상자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편지 배달을 거절한다. 기입은 트럭 운전수와 다령을 따라 창고를 떠나고, 자양만 혼자 남아 앞으로도 계속 창고지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작품의 특징

- ‘복어 대가리’, ‘상자’, ‘창고’ 라는 소재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 대립되는 가치관을 지닌 인물을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결론을 통해 독자 참여의 폭을 넓힌다.
-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탐구하는 작품으로 인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한다.



이강백, 「복어 대가리」

[앞부분의 줄거리] 트럭에 상자를 옮기는 일을 하는 창고지기 자양은 꼼꼼하고 성실하지만, 동료인 기임은 일을 대충 처리한다. 기임은 트럭 운전수의 딸인 다림과 사귀며 술에 취해 들어오고, 자양은 기임에게 잔소리를 하면서도 복어 해장국을 끓여 준다. 창고지기 생활에 싫증이 난 기임은 상자 하나를 일부러 잘못 실어 보내 놓고 자양에게 이야기한다. 자양은 상자 주인에게 편지를 써서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고, 기임은 다림을 따라 창고를 떠나려고 한다.

↳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단절된 공간. 산업 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연쟁이 벌어진다. 자양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자양은 상자 주인에게 상자가 잘못 되었음을 알리고자 함 ↳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 산업 사회에서 부품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냄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

↳ 서로의 이름이 아닌 별명을 부르는 모습은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음을 드러냄

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 번 볼 수조차 없어. - 현대인들은 서로 소통하지 않고 살아감

자양: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 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 자양의 성격은 성실하고 정직함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에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 관객에게 자양의 의도를 전달하려는 의도

자양: 네, 바로 그겁니다.

운전수: 그게 또 큰 착각이라구.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지거든.

자양: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 복잡한 현대사회의 특징

↳ 주어진 역할만 하고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중략) ↳ 상자 주인에게 상자가 뒤바뀐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

↳ 혼자 떠나려는 것에 대한 미안함

기임: 미안해!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은 서운하군. (창고 안을 둘러보며)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몇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마…….

자양: 그래…… 우린 철부지 시절부터 이 창고지기였어.

기임: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도 보살펴 줬지.

자양: 날 의붓어미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 자양이 잔소리가 심하다고 해서 붙인 별명

기임: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자양: 나도 알아. (기임을 껴안는다.) 제발 가지 말아!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기임: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니야. - 창고를 떠나려는 기임의 단호한 태도

운전수: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창고 밖으로 나가며)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 희는 어서 짐 싸 들고 나와!

다림: (늦쇠 국자로 소리 나게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 봐요. - 이별하는 자양과 기임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는

기임: (자양의 포옹을 풀며) 나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굶뎡아, 네가 골라 줘. 다림의 이기적인 태도

↳ 자양의 별명. 자양이 꼼꼼하게 하느라 일을 느리게 처리해서 붙임.



작자미상, 「산성일기」

자양: 아냐, 쓸 만한 게 있거든 모두 내가 가져. - 기임을 향한 자양의 애정과 배려

기임: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자양이 기임의 생일선물로 구입한 것. 이별선물이 되어 버림 ↵

자양: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 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침대 밑의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를 찾아낸다.)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군.

기임: (자양에게서 스웨터를 받아 몸에 대본다.) 근사한데!

다링: (자양의 침대 밑을 바라보며)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 다링의 속물적인 성격

기임: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 자양을 염려하는 기임의 마음

자양: 가져가요. - 희생적인 자양의 성격

다링: (자양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걸 뭐죠?

자양: 북어 대가리죠.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 자양이 술을 마신 기임의 해장을 위해 끊어주던 북엇국의 재료

다링: 북어 대가리……?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서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자양: (북어 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 기임과의 추억을 간직하려는 자양

(창고 밖에서 트럭의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 미스 다링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다링: 아버지가 재촉해요. (상자와 담요를 들며) 어서 들고 나가요.

기임: (트럭을 들고, 자양에게) 그럼 잘 있어.

자양: (마지막 대답한다.) 잘 가…… 가서 행복해.

↳ 기임과의 이별을 원치 않는 자양

↳ 기임이 자양을 위해 두고 간 선물. 홀로 남은 자양의 모습을 반영.

(기임과 미스 다링,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자양은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창고 문 앞에서 자양과 기임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기임: (소리) 이 창고 앞의 상자들은 어쩔 거야? 내가 좀 창고 안에 옮겨 주고 갈까? - 자양을 위한 기임의 배려

자양: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링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양,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높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 시끄러운 밖과 대비되는 조용한 창고의 모습. 홀로 남은 자양의 외로운 상황이 부각됨

↳ 알맹이는 없이 생각만 남은 허무하고 쓸쓸한 인생

자양: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 방향성을 잃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현대인을 상징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한……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북어 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 자신이 지냈던 삶의 방식과 신념에 회의를 느낌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 돼. (핸들 카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고 함

↳ 소외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계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자양. ↳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자양,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

- 막 -



정호승,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 갈래 : 현대 수필, 경수필
- 성격 : 개성적, 교훈적, 경험적, 사실적
- 제재 : 제비꽃
- 주제 : 저마다의 개성이 지닌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삶의 가치

#EBS

해제

이 작품은 정호승이 지은 현대 수필로, 각자의 개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로 제비꽃을 예로 들면서 인간들 또한 그러한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저마다의 개성이 지닌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삶의 가치

구성

- ▶ 처음: 남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며 살다 사라지는 꽃들의 세계
- ▶ 중간: 다양한 모습으로 피어나 스스로 아름다움으로써 세상을 아름답게 해 주는 꽃들과 그러한 꽃들처럼 자신을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인간
- ▶ 끝: 인간은 누구나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되새김.



정호승,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

꽃들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제비꽃은 결코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고, 진달래는 결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있

↳ 꽃들의 태도를 들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힘

↳ 앞 문장의 부연 설명에 해당함(연쇄법) ↳

는 그대로 자신을 한껏 꽃피우다가 떠날 시간이 되면 아무 말 없이 떠나갑니다. 만일 제비꽃이 진달래를 부러워하고 진달래가 장미를 부러워한다면 꽃들의 세계에서 인간들과 똑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 인간들의 세계에는 많은 불행이 있지만, 꽃들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다행히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꽃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쁘다 내가 예쁘다 다투

↳ 앞 문장 내용, 꽃들의 세계에 일어나는 불행

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며 열심히 살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 계절의 변화에 따라 피고 지는 꽃들을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며 열심히 살다 가는 존재로 인식함

어떤 꽃을 보고 ‘예쁘다, 예쁘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들은 꽃들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이 인간의 잣대로 자기

↳ 인간들은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냄

↳ 인간들의 평가가 자기중심적인 것임을 강조함 ↳

중심적인 평가를 한 것일 뿐입니다. 벌레들을 보고 해충이니 익충이니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꽃들은 그런 이기적인 평가를 내리는 인간들 앞에서도 그저 스스로 아름다울 뿐입니다. 스스로 아름다움으로써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해 줍니다. ↳ 남들의 평가와 관련 없이 꽃처럼 스스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냄

만일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땅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비꽃이 제비

↳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 문답법

꽃답게 피어남으로써 세상을 진정한 봄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 사람들의 개성이 저마다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은 아름다워짐

(중략)

↳ 글쓴이이자 인간 전체를 의미함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나

↳ 제비꽃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인간에게 적용함

↳ 제비꽃과 비교함 ↳

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것입니다. 제비꽃이 제비꽃이면 되듯이 나 또한 이대로 나 자신이면 됩니다. 아무리 남의 장점이 돋보여도 남의 장점을 통해 나의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그 단점이 장점일 수 있습니다. 남의 장점을 통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의 단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장점이라고 생각한 그 장점이 경우에 따라서

↳ 남의 장점과 비교하여 자신이나 주위 사람들의 단점을 찾아내려 하지 말 것을 강조함

는 단점일 수 있습니다. 남의 장점을 나의 장점으로 가져오기에는 나의 어떤 형편이나 환경이 그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어진 환경에 따라 장점과 단점은 서로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냄.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되고,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됩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꽃은 없듯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

↳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답게 살 것을 이야기함.

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의 인생이든 인생의 무게와 가치는 똑같습니다.

↳ 저마다의 인생이 모두 무게 있고 가치 있는 것임을 강조함.

#작품의 특징

- 글쓴이의 생각이 솔직담백하게 나타남.
- 일상의 어휘를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임.